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5. 11. Vol 237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야간산행

남들이 집으로 갈 때 반대로 간다
랜턴은 없어도 무방하다
두려운 것은
어둠이 아니라 사람이다
언제 부턴가
속으로 흘리는 땀
바람에 찢리며, 불끈 주먹을 쥐다
가슴에 낀 집 부수며
깊은 산 낮선 소리 들으러
추운 날
혼자서 간다



오만환

- 충북 진천 출생 / 예술계 신인상 당선/ 진천문인협회장
- 시집 「칠장사 입구」 「서울로 간 나무꾼」 「작은 연인들」
- 시평집 「식탁 위에 올라온 시」
- 농민문학 작가상, 산문학상, 국제문화예술상(문학부문) 외
-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이사 / 한국문인산악회장 / 한마음고등학교장
- 한국농민문학회 운영위원장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5. 11. Vol 237

Contents

- 04 | 제342회 · 343회 임시회 주요내용
- 06 | 도의회, 무상급식 해결 위해 노력
중국 길림성 인대 방문 - 교류협력 추진
- 07 | (옛) 중앙초 부지 활용방안 공청회 관련 기자회견
초대 충북도의회 의사당 표지석 제막식
- 08 |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문
충북농업의 현실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 09 | 북부권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충청북도 학교 운동장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10 |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충북학생 성적 향상 대안은 없는가? 토론회
- 11 | 각 위원회 의정활동 상황
- 17 | 대집행부질문 · 답변
- 22 | 제342 · 343회 임시회 주요처리의안
- 24 | 5분 자유발언
- 28 |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 의원논단



충북 제천 베론성지
베론성지는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공기, 유난히 붉은 단풍이 아름답다.
(사진제공 : 제천시청)

- 발행일 2015. 11.
-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언구
- 발행처 충청북도의회
- 주 소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043) 220-5123
- F A X (043) 220-5119
- 홈페이지 <http://assem.cb21.net>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의회는 제342회 · 343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원수 축소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대집행부질문 등을 실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대집행부질문 · 정책 토론회 등 현안 해결 앞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6년도 예산안 심사계획 수립도

충북도의회(의장 이언구)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또 10월 12일부터 10월 21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4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대집행부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40건의 안건을 심사 · 의결했다.

먼저 도의회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충북농업의 현실 진단

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충청북도 학교운동장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9월 1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김양희, 이광희, 윤홍창, 박병진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집행부질문에서는 △충북도교육청의 1년 성과 △무상급식비 분담 △충북학생 학력수준 실태 및 학력제고 방안 △충북도교육청 기관용 업무차량 운영



△가정용 Wee센터 운영 △MRO사업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와 아시아나항공사와의 협력, 타 시·도 MRO 사업추진 및 대응방안 △올바른 재난안전 정책 추진과 재정운영 철저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대응전략 방안 등을 각각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임희무, 박봉순, 박한범, 장선배, 이양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와 무상급식 문제 해결 △소모적 무상급식 논쟁 지양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의 적극적 대응 △지방세 감면연장·교부세 개편안 저지 등을 각각 요구했다.

9월 11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보 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등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10월 12일부터 10월 21까지 10일간 열린 제343회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문」 채택과 '충북 북부권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충청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토론회', '충북학생 성적 향상 대안은 없는가? 토론회' 등을 실시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 섰다.

특히 최근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갖는 등 양 기관의 무상급식 문제 중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10월 12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학철 의원이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하여 △무상급식 문제 해결 및 정부 예산 확보에 관련한 사항들을 따져 물었다.

이어 엄재창, 이종욱, 정영수, 박우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충북도 남·북부 출장소를 남·북부의 작은 도청으로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충북에 체육중학교 설립 △일자리 관련 정책의 효율적 개발과 실행 등을 각각 요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 등 4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회 마지막 날인 10월 21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김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충북인재양성재단 등 11개 기관의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또한 임병운, 강현삼, 윤은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오송 과학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및 오송전시관 설립 △상공회의소 독립을 위해 북부권 상공인들에게도 기업지원의 기회를 △도민 모두가 다함께 누리는 감동문화 확대 등을 각각 요구했다.

무상급식 특위 구성해 분담률 갈등 근본적 해결

도의회, 기자회견서 '중재안' 발표... “대승적 차원서 수용” 촉구

충북도의회(의장 이언구)는 그동안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에 대한 갈등으로 도민의 우려와 불안이 고조되고, 도의회의 갈등 중재 노력에도 양 기관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최종판단 하에 10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타결을 위한 중재안을 발표하며, 이의 수용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중재안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무상급식 지원 원칙과 타 지역 및 충북의 이전 무상급식 평균 분담률 등을 고려해 심숙고 끝에 마련된 것으로,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 원 중 비배려계층 식품비 318억 원 전액과 급식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운영비 71억 원을 합친 총 389억 원(급식비 총액의 43%)을 충북도가 분담토록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고, 충북도는 분담금액은 수용하되 지원 항목을 식품비로 한정하여

본 분담률을 민선6기 동안 매년 적용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10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본 중재안은 2015년도 무상급식 분담에만 한정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 분담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1월 말 이후 급식비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대승적 차원에서 도의회의 중재안 수용을 재차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무상급식비 분담률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대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찾겠다”고 말했다.



이언구 의장과 윤희희 대변인이 무상급식에 대한 중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도의회, 중국 길림성 인대와 교류협력 추진

청주국제공항을 통한 관광상품 확대 등 협력방안 모색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 일행이 10월 27일부터 4일간 중국 길림성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언구)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이언구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강현삼·박우양·임순묵·정영수·최광옥 의원 등 11명)을 구성하여 우호교류 지역인 중국 길림성인민대표대회를 공식 방문했다.

대표단은 지난 10월 27일 중국 길림성 상그릴라호텔에서 길림성인민대표대회 순봉서(荀鳳栖) 부주임과 회견을 갖고, 청주국제공항을 통한 관광상품 확대, 양 지역의 현안사업 교류확대 등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언구 의장은 “청주공항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이 용이한 유일한 공항임”을 강조하며 “우리 충북은 사계절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뷰티, 의료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가지고 있어 양 지역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교류활성화를 통해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의했다.

이에, 순봉서(荀鳳栖) 부주임은 “길림성 주민들이 한국 방문 시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하며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시에는 길림성 인민대표대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 반드시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 희망

도의회, 중앙초 부지 활용방안 공청회 관련 기자회견

충북도의회(의장 이언구)가 그동안 충북도에 ‘더부살이’ 했던 60여년의 세월을 청산하고 독립청사 건립을 실현하고자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월 26일 ‘(옛)중앙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15일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을 위해 (옛)중앙초등학교 부지매입에 전격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여 동안 부지활용 문제로 지루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리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옛)중앙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10월 16일에 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힌 뒤 도민인식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도의회는 공청회 관련 도민인식 조사 결과 도와 도의회의 청사 공동이용에 따른 독립성 저하에 대해 ‘공감한다’가 42%로 제일 높았고, 부지활용에 대하여는 37.7%가 ‘도청+도의회+행정타운’을 가장 선호했으며, 도청 2청사는 12.4%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번 기회에 독립청사가 마련되지 못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의를 전당인 도의회 독립청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적극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윤은희 대변인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초대 의사당 표지석 제막식

초대 의사당인 (옛)중앙초등학교에 설치



충북도의회는 10월 19일 초대 충북도의회 의사당이 있었던 (옛)중앙초등학교 강당 앞에서 ‘충북도의회 의사당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언구)는 10월 19일 청주 (옛)중앙초등학교 강당 옆에서 차주원, 김준석, 김진호, 유주열, 이기동 등 역대도의회 의장 5명과 이언구 의장을 비롯한 제10대 현직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 충청북도의회 의사당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

도의회는 “(옛)중앙초등학교 강당이 1952년 초대 도의회 개원 당시부터 1954년까지 2년여 동안 충북도의회 의사당으로 사용되었기에 상징적 의미를 기념하고자 표지석을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차주원 전 의장(제5대 전반기)은 제막식에서 “도의회 오랜 숙원인 독립청사 건립을 이루지 못해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한 뒤 “지금이라도 도의회 독립청사가 꼭 건립 되도록 제10대 도의원들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언구 의장은 “이곳은 지방의회 기초를 닦기 위해 최동선 초대 도의장을 비롯한 28명의 도의원들이 밤낮으로 열정을 쏟아 부었던 곳”이라며 “도민의 뜻을 대변할 민의의 전당이니 만큼,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 국회의원 의석 축소는 법률적 정당성 위배”

도의회,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문’ 채택

충북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에서 제기되고 있는 충북지역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0월 12일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발송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청주시 국회의원 의석수를 4석에서 3석으로 축소하려는 논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통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이익 배제 원칙’을 위반하는 법률위반 행위이자 법률적 정당성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특히 인구 154만여명의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9석인데 반해 인구 158만여명의 충북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7석인 것은 광역자치단체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는 지방의회 의원 의석수 축소로 이어져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은·옥천·영동군 선거구에 괴산군을 편입하는 통합선거구 논의는 역사적 배경, 전통적 일체감 등 지역적 특성이 다른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라며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나타난 선거구 획정기준에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충청북도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의 대표성 확보 ▲지방자치의 원칙 준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선거구 획정 등을 고려해 충북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농업 현실 진단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

“도농교류 강화 등 충북농업 돌파구 찾는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양섭)는 9월 9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도의원, 농업인단체, 농업분야 행정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농업의 현실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가 간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농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학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반기민 농산촌 활성화연구소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문근 충북도 농정국장, 차선세 충북도 농업기술원장, 한대수 충주시 농업정책국장, 최도영 건국대학교 교수, 이태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이찬일 충주시 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 등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반기민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급변하는 소비패턴 변화 수용과 IT·BT·NT 융복합 과학영농 추진 등의 구축과 행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작은 시골마을에서부터 실행될 수 있는 정책수립, 농축산물의 브랜드화와 농업고급인력 장인 육성” 등을 주문했다.

좌장을 맡은 김학철 의원은 “조상들이 농업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 그대로 세상의 근본인 농업을 지키는 것이 모두를 지키는 것”이라며 “도의회에서도 충북농업 발전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아낌없이 지원하고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온 힘을 기울이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부권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천 중심 특화도시 육성... 단양관광 활성화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충북 북부권 발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10월 19일 제천시에 위치한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에서 도의원, 제천시·단양군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북부권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의 북부권역을 인근 도시와의 연계성 강화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태훈 충청북도 균형발전과장의 ‘충북 북부권 발전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발표에 이어 김진형 제천부시장, 김창식 단양군 기획감사실장, 정삼철 충북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관표 세명대 교수, 이보환 중부매일 기자, 장석찬 제천내제문화연구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제천시를 중심으로 특화도시를 육성 한다는 중핵도시 사업의 중요성과 단양군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중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 전략적인 사업선택과 집중이 필요, ‘관광’이라는 테마를 이용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주변 교통여건을 개선한 주변도시와의 연계성 강화와 북부권의 인구증과 역사성을 고려한 실버문화사업과 역사 문화기행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소관실국에 전달해 북부권 균형발전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운동장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생건강증진... 교육 효과 제고 방안 모색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지난 9월 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충북학부모연합회, 환경단체, 전문가,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학교운동장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광희 의원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조성되고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이 환경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유해성물질 검출, 초기설치비용과 재설치 비용 과

다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됨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교육대학교 이은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충북대학교 손현준 교수의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그 문제와 대책’이란 주제 발표에 이어 도의회 이광희 의원, 충북도교육청 김관훈 장학관, 오송고체육고등학교 문창환 교사,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이유자 회장, 환경단체 박완희 두꺼비친구들사무처장 등이 건강과 교육, 환경, 경제적 측면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특정형태의 획일적인 선택보다는 학교운동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공간으로의 폭넓은 활용을 제시했고, 친환경성과 쾌적한 환경 등에 대한 고려,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체계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은 “친환경적인 학교운동장으로의 변화·개선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운동장 조성 조례(안)’를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정책토론회’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치 절실하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10월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속에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방과후학교 강사 근무환경 및 처우 등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전국 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 배일훈 사무국장은 주제발

제를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과정에 방과후학교 강사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과 강사들의 1년 단위 계약체결·해지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설치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충북 방과후학교연합회 장영실 대표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윤기욱 회장,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 등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고용과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외부민간위탁 확대 중단과 민간위탁 방과후학교사업 재평가 △업무담당 기관과의 상시적인 소통창구 마련 등을 강조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곽노선 장학관은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 강사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운영 방안과 강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안정적인 강사로 지급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학생 학력 신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율형 사립고 신설로 우수학생 도내 유입”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10월 23일 김양희 의원 주관으로 충북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충청북도·도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역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충북학생 성적향상 대안은 없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양희 의원을 좌장으로 실시된 이번 토론회는 김국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유수 도교육청 장학관, 김종렬 충북고등학교 교감, 김선진 세광고등학교 교감, 조은경 학부모, 권기창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회장, 황동민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감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 주제발제에 나선 김국현 교수는 “증가하고 있는 도내 우수 중학생들의 역외 진학률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자율형사립고 신설을 통한 우수학생 도내 진학 유인 △남녀공학보다는 단성의 고등학교 교육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에 적합한 진로 진학지도 체제 강화 △충청북도교육청 자문위원을 활용한 학교교육 컨설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 회복 △교원의 질 향상과 교육적 열정 강화 △우수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입시와 진로·취업에 대한 전문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을 공통의견으로 강조했다. 이유수 장학관은 “진학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42 · 343회 임시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한범 의원)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의결하고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제343회 의사일정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승인하는 것과 각종 의안심사, 부의안건, 현지방문 등의 안건 처리이다.

심사에 앞서 실시된 간담회에서는,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되는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범국민적 분위기 조성과 성공적인 엑스포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 제34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서울역 청사 및 인근지역에서 홍보물 배부와 입장권 예매 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또 회의운영에 있어 여건 변화에 따른 내실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타 시·도 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시설현황 등을 파악해 의정에 반영하기

로 하고 회기 중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정보를 수집했다.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 총 4건을 심사·의결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금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상황 등 기관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제출서류 확인, 관계관의 출석증언과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11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40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간담회를 갖고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청주권,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릴레이로 실시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간담회를 갖고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현안을 협의 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42 · 343회 임시회

아동학대 예방 · 가정위탁 활성화 등 추진



정책복지위원회는 10월 13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척상황과 공사장의 안전관리 상태,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제342회 임시회 회기 중 박한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3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심사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및 관계 법령의 제명 변경과 수수료 납부에 있어 수입증지 요금제기의 사용 규정을 명시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들이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도록 아동학대 예방, 가정위탁 활성화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과 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박한범 의원의 수정발의로 '의료관광협의회 구성 및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 설치 · 운영에 대한 조항'과 '관 중심에서 탈피한 의료관광 활성화 업무를 위한 민간 위탁 조항' 등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또한 충주의료

원 · 충북도립대와 현안 간담회를 열어 '충주의료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결과 후속조치 및 추진계획과 '충북도립대 중기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4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2016년도 출연 계획안 4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2건을 심사 · 의결했다.

먼저 충북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일부개정조례안 4건 중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 대한 우선 고려 조항을 신설하고, 3건은 도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일괄 정비했다.

또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과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외 3개 기관의 2016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며 도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현장과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 노인전문보호기관 등을 방문하며 생생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42 · 343회 임시회

청주의료원 심혈관 센터 등 공유재산 계획 승인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회무)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윤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 관광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 임원정수를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기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연철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한을 종전 '20년부터 40년 이하'에서 '20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15층 이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을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다양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진천과 단양에서 개최된 '충북 이·통장 체육대회'와 '충북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충청북도 국회의

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문」 채택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10월 12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 채택한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문」은 청주시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4석에서 3석으로 축소하려는 논의는 통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막기 위한 '불이익 배제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정당성을 위배하는 등의 행위라고 지적하고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0월 14일 실시한 제2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 예산편성 후 사후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은 행정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임"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10월 13일 「2016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청주의료원을 방문해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시설을 살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42 · 343회 임시회

신규사업 사전 간담회 통한 예산운용 효율성 증대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5일 괴산군 연풍면에 위치한 조령산자연휴양림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을 듣고 주변시설을 점검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양섭)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지구에 대한 현지방문과 ‘충북 농업 현실 진단과 대책’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먼저, 9월 2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이어 진천군에 위치한 ‘백곡지구 참숯테마공원’과 보은군에 위치한 ‘산대지구 농어촌테마공원’을 방문해 빈틈없는 추진과 성공을 당부했다.

또 9월 3일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와 대한오리협회 충북도지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축산농가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9일에는 충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북농업의 현실 진단과 대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FTA 체결로 어려움에 처한 충북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

건의 조례안과 계획안 1건을 심사·의결하고 조령산자연휴양림 등의 현지방문과 농업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와 2016년도 신규사업 사전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먼저, 10월 14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또 「2015년 행정사무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14일과 15일에는 충청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 충북농촌체험마을협의회 등의 임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조령산자연휴양림,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등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19일 실시한 국·청·원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신규사업 사전 간담회’에서는 “연말에 심사게 될 당초예산 중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배경과 타당성을 사전에 협의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42 · 343회 임시회

남·북부지역 등 지역균형발전사업 활성화 요구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9월 7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결발의 조례안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장기 미개발된 밀레니엄타운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승인받기 위한 「밀레니엄타운(옛 종축장부지) 사업계획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C&V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9월 7일부터 2일간 남부권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실태점검을 위해 영동군 와인코리아와 국악체험촌, 옥천군 전라산업클러스터센터, 보은군 우진프라임과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꼼꼼하게 점검했다.

그리고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북부권 발전전략 정책토론회' 개최와 충남종합방재센터 견학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10월 12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기타 안건으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6년 예산 편성에 앞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을 사전의결 받기 위한 「201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 등 3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타 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보고체계 우수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충남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하여 통합조직 운영 실태와 시스템을 견학하고 이에 대한 자료분석 등을 토대로 향후 충청북도 재난컨트롤타워 일원화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도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실태 집중 점검의 일환으로 영동 와인코리아를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교육위원회

제342·343회 임시회

설립부지 높아 ‘(가칭) 용전초 설립 계획’ 보류



교육위원회는 10월 19일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1번지에 위치한 충주기업도시 내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듣고 설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당초 사업목표와 추진계획에 따라 실효성 있게 추진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 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 이광희 의원은 “청명학생교육원의 이미지 쇄신과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숙애 의원은 “단재교육연수원의 양성평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종욱 의원은 “직속기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확보 및 시설확충,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촉구했고, 김양희 의원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세부사업별 추가설명자료 제공과 집행률이 기재되도록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영수 의원은 교육정보원 2015년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윤홍창 위원장은 12개 직속기관의 보고형식을 일관성 있게 통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그리고 제343회 임시회 중에도 위원회를 열고, 김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위원회는 심사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실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일수를 40일에서 10일을 축소 한 30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은 보류되었으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용전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취득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다.

(가칭)용전초등학교는 설립부지 매입단가가 공장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학교정면에 11m정도의 옹벽이 설치되고 그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 학교용지로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충북도교육청 1년 성과 및 학력제고에 대하여

김 양 희 의원
(교 육 위 원 회)



도교육청 1년 성과 · 선거법 위반 관련

- 질문** | 교육감의 임기가 1년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취임 이후 이행했던 공약 중 가장 대표성을 띤 사업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0교시수업 폐지, 학교평가 및 기관평가 제도개선, 의전 간소화, 소통담당기구 신설, 학교직원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일부 추진 또는 미이행 과제입니다.
- 질문** | 교육계의 수장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분이 부끄러운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동의하시죠?
- 답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척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었습니다.
- 질문** | 2015년 5월 17일 대전고법에서 사전선거운동 범죄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에서 “고심 어린 판결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 답변** | 검찰이 항고와 상고하는 것을 보고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 질문** | 도교육청 재정은 파탄이 나고, 교육감은 갈등 있는 현장에서 안보이고 행사장에서만 보이는 겉모양이 화려한 공약만 난무했다는 평가를 한번쯤 가슴에 새겨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 답변** | 예, 지적하시는 부분은 성찰해 보겠습니다.

무상급식 분담 문제 관련

- 질문** | 충북도와 무상급식비 갈등에서 보듯이 지난 1년간 지리멸렬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 무상급식에 대한 갈등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질문** |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논리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무상급식비 분담률 50대 50에는 양 기관의 의견이 같습니다. 다만, 분담액 산정 시 인건비, 운영비,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부분의 국비지원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질문** | 이젠 우리 아이들 밥 먹는 거 가지고 두 분이 결론을 내셔야 할 단계인데 의지가 있으십니까?
- 답변** | 공식 · 비공식 온갖 라인과 채널을 최대한 동원해 고충과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사님과 무릎을 맞대고 협의해 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수준 및 학력제고 관련

- 질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학년도 수능성적 분석 결과 충북은 하위권이라고 언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충북 학생들의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니까?
- 답변** | 수능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국단위 표본 학력검사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모든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즉각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 질문** | 교육감님께서도 충북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평준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 답변** | 예, 당연합니다.
- 질문** | 요소요소에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답변** |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질문** | 충북이 전국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도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 답변** | 최상위 아이들이 제일 많아서 된 게 아니고, 부진한 아이들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 질문** | 문제는 교육감께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대한 열정 부족입니다. 교육감님의 열정이 넘쳐야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전달되고 그 열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겁니다.
- 답변** |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힘은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저절로 공부를 잘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 질문** | 교육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학부모님들과 우리 도민들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 답변** | 네, 알겠습니다.

도교육청 기관용 업무차량 운영 및 가정형 Wee센터 운영에 대하여

이 광 희 의원
(교 육 위 원 회)



도교육청 기관용 업무차량 운영 관련

- 질문** | 도교육청 국장이 기관용 업무차량을 업무와 관련 없이 출·퇴근 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답변** | 최근에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 질문** | 기관의 업무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 당연히 공용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질문** | 출·퇴근을 위해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 답변** | 자택에서 바로 출장지로 향할 때도 있고, 차량점검 등으로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질문** | 고위직들이 공사 구별을 혼돈해서 공적인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답변** | 예,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 질문** | 왜 우리 도의 직속기관장들에게만 전용차량을 배치한 것입니까?
- 답변** | 정부 차원에서 기준이 만들어질 때 충북에서는 타 시·도 사례 같은 것을 충분히 감안·비교하지 않고 자체 필요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질문** | 어린이 통학버스 임차전환 정책에 반해 기관장 1인만을 위해 운영하는 대형 전용차량은 재정효율화에도 역행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권위주의적 사례이며,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면 이것부터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 | 과도한 의견인 것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터무니 없는 예산낭비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가정형 Wee센터 운영 관련

- 질문** | 가정형 Wee센터가 뭐하는 기관입니까?
- 답변** | 센터 같은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 질문** | 어디에 있습니까?
- 답변** | 유리분교에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질문** |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폐교된 학교에 여자 청소년들의 쉼터 구실을 하는 가정형 Wee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왜 이곳에 센터를 구축했습니까?
- 답변** | 어떤 배경에서 그랬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접근성면에서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 학생수용인원을 보면 2012년 4명, 2013년 2명, 2014년 5명, 2015년 5명입니다. 이런 예산낭비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답변** | 의원님 지적 받고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시급히 찾고 있습니다.
- 질문** | 가정형 Wee센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변** | 예, 필요합니다.
- 질문** |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답변** | 유리분교는 특수교육센터로 만들고, 가정형 Wee센터는 시내로 옮겨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질문** | 청소년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예, 알겠습니다.
- 질문** | 2008년 폐교된 학교에 누가 인조잔디를 조성 했습니까?
- 답변** | 유소년·청소년 축구동아리 활용의 취지로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 예산낭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답변** | 알뜰하고 요긴한 예산은 아니지만, 전천후 훈련이 가능한 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 | 권력을 남용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는 한, 교사가 교육의 중심에 서서 교권이 바로 선 교육 풍토를 조성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 MRO 관련 사업 추진 및 대응과 관련하여

윤 홍 창 의원
(교 육 위 원 회)



MRO 사업 정책토론회 추진 관련

질문 | 경남의 MRO산업 육성 세미나가 5월 6일 끝나고 충북은 6월 18일 청주공항 MRO클러스터 구축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답변 | 예, 맞습니다.

질문 | 중요한 사업의 토론회를 도의회 회기 일정까지 영향을 주면서 강행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생각입니다. 지사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답변 | 토론회를 통해 MRO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토부와 공감을 나눴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경남은 사업설명회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국토부 담당 과장 및 산업통상부 차관까지도 대거 참석했고, 국회의원이 30여 명이 넘게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충북은 수년 전부터 MRO를 준비해 왔고,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계획을 보고 받고 앞으로 예산까지 세워줄 도의회 의장과 관련 상임위 도의원들도 사업설명회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경남에서 세미나를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급히 서둘러서 한 것은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RO아시아나항공사와 협력 관련

질문 | 경남과 카이는 민간항공 수요확보 등에 대해 국토부의 권고를 받고 최종 협의를 거쳐 9월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걸 알고 계시죠?

답변 | 카이의 문제라서, 남의 얘기를 여기서 제가 얘기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5월 청주공항 MRO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답변 | 재검토 중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 진행 중이라 공개석상에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질문 | 항간에는 재검토 지시를 놓고 아시아나항공이 충북 MRO사업에서 발을 빼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아시아나에서 발을 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경남도와 카이가 민수물량 확보를 위해서 아시아나와 접촉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답변 |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질문 | 지사님! 아시아나와 맺은 업무협약이 잘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 정말 맞으시죠?

답변 |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MOU를 체결함으로써 한 단계 더 접근해 간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타 시·도 MRO 사업 추진 및 대응 관련

질문 | 지금 인천은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정비 격납고 신설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아 소형여객기 2대를 동시에 정비할 규모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인천은 LCC중심의 경정비, 운항정비 수준의 개념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청주공항 MRO와 상충되거나 경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그럼 인천은 완전히 떠날지도 않을까? 인천하고 이 사업계획서하고는 분리시켜서 봐도 되느냐 이겁니다.

답변 | 큰 방향은 서로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LCC관련해서는 서로 경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질문 | 지난 12월 카이와 업무협약이 깨지고 경남에게 뺏겼을 때도 지사님은 문제가 없다고 유치를 장담하셨습니다.

답변 |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 집행부는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철저한 대응논리와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MRO사업이 반드시 충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재난안전정책 추진과 재정운용 철저 촉구

박 병 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재난안전정책 추진 관련

- 질문** | 재난안전실장이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겸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변** | 중앙정부와 도내 시·군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대규모 행사 재난안전 대비를 위해 안전관리 차원에서 재난안전실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 질문** | 민선6기 공약사항인 위기관리 정책보좌관제 대신 자문관을 도입한 배경과 그 간 자문실적, 향후 자문관 도입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당초 정책보좌관 임용을 검토하였으나 상근 전문가 초빙이 어려워 부득이 비상근 명예직 자문관제를 운영하여 도정자문, 교육·특강, 정책토론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보좌관제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도입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기대응 매뉴얼 운용 관련

- 질문** | 도에서 매년 시행하는 위기대응 훈련·연습 종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우리 도에서는 매년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범정부차원에서 실제훈련, 도상훈련을 병행하여 실시 중이며 각 실국 및 소방본부에서는 자연재난, 긴급구조 훈련 등을 연 340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질문** | 최근 3년간 위기대응 매뉴얼 활용실적과 담당 공무원 매뉴얼 숙지를 위한 노력, 향후 재난안전상황실과 소방종합상황실 일원화 체제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위기대응 매뉴얼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총251회 활용됐으며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훈련시 매뉴얼을 반복 활용해 담당공무원이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과 소방종합상황실의 일원화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관련

- 질문** |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계획과 우리 도 소방차량과 장비의 노후율, 부족률에 따른 확충계획 및 교부세 차등교부 관련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 관련 일반회계 전체를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조례안 제정을 10월에 의회에 상정 예정이며, 우리 도 소방차량과 장비 노후율, 부족률은 약 16~19%, 2%이하이며 차등교부 평가지표인 중점사업의 소방차량, 장비를 우선 교체 보장하여 장비 노후율 및 부족률을 연차적으로 낮추는 물론이고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더 많은 교부세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재정문제 관련

- 질문** | 복지분야 수요 증가 및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지자체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복지분야 예산 증가 및 도내 지역간 복지분야 격차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답변**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사회복지분야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간 복지분야 격차를 최소화 하고자 시·군간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대응 관련

- 질문** |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충북도가 노력한 내용과 환경영향평가 반려 결과에 따른 재추진 시도의 장기적 대응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범도민대책위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도민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한 결과 반려라는 결과물을 도출하였고, 향후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재추진을 대비 환경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근본적 대응을 위하여 온천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북도 · 도교육청 무상급식 해결 및 정부예산 확보 촉구

김 학 철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무상급식 관련 - 도교육청

질문 |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입장차가 무엇입니까?

답변 | 도청의 입장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부금 중 인건비 또는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을 일정부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5대5 분담 한다는 입장이고,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총비용 중에 5대5 분담한다는 부분에서 양쪽의 입장차가 있습니다.

질문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도 입장이 요지부동일 경우에는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시겠습니까?

답변 |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한해 2,600억 ~ 2,700억 원에 불과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도민의 전체 의중을 반영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해 온 거고, 또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해서 연말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 충청북도

질문 | 지사님께서도 부교육감이 답변한 내용과 같은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답변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 종전에는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해 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배려계층 · 비배려계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같이하는게 좋겠다는 취지로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무상급식 혜택 범위를 초 ·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우선 축소하고 재정상황이 나아진 이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공약을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 | 일부 다른 시 · 도는 초 · 중학교를 구분하지만, 모두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면 무

상급식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예산 확보 관련

질문 | 내년 4조 5,0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중부고속도로 호법에서 청주까지의 확포장 예산반영이 안되었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이 1공구에만 고작 7억 원의 예산이 반영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중부고속도로는 세종특별시장과 협의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에서 심의 시 연계검토 하지 말고 각각 따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국토부에 공동으로 건의 하였고, 기재부에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토록 협의 되었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현재 1공구 실시설계가 금년 연말쯤 끝나고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으로, 1공구 사업비가 반영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노력으로 7억 원의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나름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회에서 증액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5년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통과할 경제성 자체가 터무니 없이 낮아진 상황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애초에 구상했던 바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 국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입체교차로나 스마트교통체계를 도입해 선형 부분개량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으로 변경을 하며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고려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비용대비 편익(B/C)이 최소한도 0.8 이상이 나오도록 실무선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의 아주 대표적인 간선도로망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42회 임시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한범 의원)

- 기관명칭 및 관계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민원인들의 이해 돕기 위한 조문용어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의료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연철흠 의원)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의용소방대 운영사항이 종전 조례에서 법률 및 시행규칙으로 제정·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미비점 등 개선 보완

충청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인수 의원)

- 농산물 생산, 유통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 등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근거 및 절차 마련 등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광진 의원)

-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봉회 의원)

-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해 직위·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병진 의원)

-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봉회 의원)

-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광진 의원)

-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윤은희 의원)

-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정비, 운영상 문제점 보완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봉회 의원)

-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

충청북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임현경 의원)

-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임현경 의원)

-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지역사회 아동들의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사업추진과 아동복지전담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

제343회 임시회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를 허가, 위탁하는 경우 북한 이탈주민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 내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정비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 내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정비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임순득 의원)

-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이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

충청문화예술인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 내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정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엄재창 의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 반영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양희 의원)

-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교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동물보호센터 지정요건을 완화(규제완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 무급으로 부여하는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태아보호와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자기계발 시간 마련 및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 내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정비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학생 체육대회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우양 의원)

-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 조례의 기금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함

충청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 내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정비

충청북도 소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목적세인 지역자원 시설세의 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등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 조례에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명시한 단어로 조례명 변경 필요



5분

자유발언



임 회 무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에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를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노력 해주신 범도민대책위원회와 괴산군·청천면 대책위원회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 결정을 기원했으나 결과는 아쉽게도 ‘반려’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반려’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온천개발을 거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범도민대책위에서는 온천개발 완전저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추진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충북도당

에서도 온천개발 원천봉쇄를 위해 ‘온천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본 의원도 문장대온천개발이 완전 폐지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철저한 시설준비와 친절한 안내, 주민의 협조로 관람객들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공론화해보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과 해결책이 모두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교육감께서는 조속히 답판 지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박 봉 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소모적 무상급식 논쟁, 결자해지(結者解之) 자세 필요”

지난 8개월간 도민의 불안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결자해지’의 뜻과 같이 도민과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조속히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10년 11월,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유가 단지 충북도민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는 아니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합의로 충북도민은 물론 전국 언론의 아낌없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당시 지사께서 아이들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꼬마 친구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게 되니 더욱 맛있구나!” “모두가 같은 밥을 먹으며 함께 꿈을 키우는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들로 커주렴. 너희들 모두가 충북의 미래란다.”

지사께서는 당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시중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충북도내 14만 명의 초·중학생들의 행복한 밥상이 양 기관의 이해도 없고 양보 없는 진흙탕 논쟁으로 자칫 눈칫밥으로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조속한 시일 내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 한 범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적극적 대응 필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충북의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13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은 전국 평균의 두 배로, 전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아동학대 유형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유아·학부모·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의식 개선 및 학대 예방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민선6기 출범 슬로건으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주장하셨고, ‘행복한 도민’ 속에는 분명히 아이들의 행복도 포함돼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이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해 지고,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보육을 맡길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실행이 가능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선 배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지방재정 압박하는 지방세 감면연장·교부세 개편안 막아야”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지방세 감면 연장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타 시·도와 공동대응은 물론 국회를 대상으로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해 저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면 총액이 지방세액의 10%를 넘어서면 일정 비율을 국비에서 보전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편안도 큰

문제입니다.

첫째,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자체 재정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추가재원 증액 없이 보통교부세에서 배분기준만 조정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입니다.

셋째, 지역간 보통교부세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북도는 이번 보통교부세 제도 변경안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인구수에 상응하는 보통교부세 증액과 지역 균형발전 수요 신설 등 낙후된 도 지역에 교부세 재원이 증액되도록 도정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양 섭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설립되는 학교 명칭을 덕산중·고등학교로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5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도교육청은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일원에 (가칭)석장유치원, 석장중·고등학교가 2016년 9월과 2017년 3월에 각각 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진천군 덕산면에는 1955년 9월 개교하여 올해 초 제59회 졸업생까지 약 1만 1천여명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한 진천의 명문 덕산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덕산중학교는 올해 입학한 학생이 30여명에 그쳤고, 전교생은 6학급에 111명의 학생만이 재학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덕산지역의 주민들과 덕산중학교 총동문회는 덕산중학교를 새롭게 신설되는 (가칭)석장중학교로 이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가칭)석장중·고등학교의 명칭을 거시적으로 지역의 명칭을 반영하여 덕산중학교와 덕산고등학교로 각각 변경해 줄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역주민과 덕산중학교 총동문회의 뜻을 적극 수용하시어 신설되는 학교의 명칭을 덕산중학교와 덕산고등학교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엄 재 창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충북도 남·북부출장소를 작은 도청으로 만들자

지난 8월초 충북도는 남·북부 출장소 위상 강화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남·북부 출장소의 위상은 개청 초기나 현재나 유명무실한 기관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값비싼 무인민원 발급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남·북부 도민들을 위한 작은 도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일선 시·군 행정경험이 풍부한 부군수 출신을 출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인력과 기능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포도·대추·마늘·와인연구소를 출장소로 편입하여 지도·감독과 효율적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남·북부권 지역발전을 위해 관광활성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보강해야 합니다.

넷째, 남·북부권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이관하여 시·군에서 파견된 협력관들과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재량사업비를 배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소외된 도민을 위한 진정한 출장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이 종 옥 의원
(교육위원회)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2015년 6월말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은 9.9%이며 충북은 9.6%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고 지난해 대졸 취업률은 58.6%로 10명 중 6명만 직장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청년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된 ‘청년 희망펀드’ 기부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청년 희망펀드’는 취업에 어

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의 다양한 지원과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둘째, 청년들의 고용절벽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9월 일자리 40만개 창출 및 고용률 72% 목표달성과 종합대책 수립을 발표 했습니다.

부디 충북의 청년들이 단기적이고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투자와 예산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시종지사님의 과감한 투자와 예산지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 영 수 의원
(교육위원회)

충청북도에 체육중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체육꿈나무를 키우는 소년체육대회의 성적은 3년 후 전국체육대회의 성적이며 충북체육의 미래 성적표입니다.

우리 도가 더욱 염려되는 상황은 전체메달수가 매년 10개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선수자원의 급격한 감소, 둘째, 육상 등 기초종목 기피현상 심각, 셋째, 체육중학교의 부재입니다.

첫째·둘째문제는 충청북도만이 아닌 공통의 문제입니다. 충북만의 문제는 바로 체육중학교의 부재입니다.

체육중학교를 설립하면 첫째, 꿈나무 선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훈련지도가 가능한 점입니다.

둘째, 체육영재의 잠재력을 조기에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수선수의 타 시·도 유출방지입니다. 넷째, 소규모 중학교가 많은 충북은 학교운동부 육성에 대한 소규모 중학교의 행·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체육중학교를 충북체육고부지에 통합 설립할 경우 기본적인 시설인프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충북에 체육중학교를 설립하는 일은 충북체육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박 우 앙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일자리 관련 정책의 효율적 개발과 실행을

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기업의 인력운용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졸업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제한된

일자리로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일자리 관련 정책의 효율적 개발과 실행을 위해 이시종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일자리 부서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입니다. 둘째, 일자리 부서 담당자들의 전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주기적으로 일자리 관련 점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넷째, 대기업 투자유치 시 도내 대학 졸업자를 전문직·관리직에 일정한 비율로 채용할 수 있는 관련조례 제정과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 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 간 미스매치로 인한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과 도민을 많이 채용하고 장기근속을 시키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병 윤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연계도로 구축 서둘러야

2020년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의 핵심인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과 역세권 활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송 제2산단 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로, 연결도로는 오송 제2산단 준공으로 발생되

는 유발교통량을 분산하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둘째, 문화체육시설의 부족 문제입니다.

오송 제1산단 주변에 5600세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전혀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오송 제2산단 북쪽 경계와 바로 인접해 있는 축사 시설 문제로 악취가 발생해 산단 분양 시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될 게 자명합니다.

넷째, 오송 전시관 건립과 관련 청주시의 예산 지원 불가로 사업자체가 흔들거리고 있지만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편도 1차선인 오송역 지하차도 확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으로 적극적인 국비확보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 현 삼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북부권 상공인들에게도 기업지원의 기회를

제천·단양지역 상공회의소 분할 설립이 이루어져 상공회의소를 통한 기업지원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공회의소는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권익을 대변하고 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설립한 법정 민간 경제단체이며 전국에는 71개소, 도내에는 청주, 충주, 음성, 진천 4곳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음성은 충주상공회의소에서 진천은 청주상공회의소에서 각각 분리되었으며, 현재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분할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원 소속 상의 의원총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해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제천·단양 지역은 청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소외되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상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주상공회의소의 통 큰 결단을 요청하며 충청북도에서도 제천시와 단양군 상공인들의 요구를 수렴해 충주상공회의소와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분할 설립에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은 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문화예산 3% 확보,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상근직화 필요

충청북도가 지난 8월 발표한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중 미착수·부진사업 12개 중 8개 사업이 감동문화 공약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산 2% 확보공약에 있어 2014년은 1.37%, 2015년은 1.38%에 불과합니다.

도민이 감동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산이 3%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에도 많은 도의원들이 문화예산 3% 확보를 주장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문화예술 예산을 최대한으로 많이 책정하여 공약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160만 도민에게 입증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는 2011년 11월말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해 올해 인생나눔교실 운영사업 등에 8억 9천여만 원의 공모사업 선정 실적을 보여주었으나 이는 문화재단 전체예산 146억 9천만 원의 5%에 불과합니다.

문화재단 설립4년차, 이제는 설립초기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시점입니다. 도민에게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근직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도민 모두가 감동하는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 드립니다.



▲ 충북도의회는 9월 10일 서울역 일원에서 '2015과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 충북도의회는 10월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호서대학교 신해룡 교수를 초청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 당초예산 심사기법을 제고하기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했다.



▲ 행정문화위원회는 10월 1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문위원을 초청해 '2015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 행정문화위원회는 10월 19일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가 열린 강원도 주문진실내체육관을 방문해 대회에 참가한 충북선수단을 격려했다.



▲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5일 음성군 삼성면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현황과 시설을 둘러보고 홍보영상을 시청했다.



▲ 건설소방위원회는 10월 13일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우리도 재난대응 보고 체계에 접목하고자 충남방재센터를 방문해 자료를 수집했다.



▲ 교육위원회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충북 선수단을 방문해 위로·격려했다.



▲ 충북도의회는 9월 22일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현안을 협의했다.



▲ 충북도의회는 이언구 의장과 임순묵·김학철 의원, 의회사무처 간부들이 9월 23일 추석을 맞아 장애인 복지시설인 송덕재활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9월 10일 내실있는 의회 운영과 의사진행을 위해 충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듣고 시설을 견학했다.



생명의 땅 오송(五松)의 달라진 위상

임 병 윤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오송(五松)과 생명, 아름다움, 무병장수란 단어는 참으로 잘 어울린다.

오송이란 지명의 유래는 신라 말 최치원 선생이 이곳 오송에 머무르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에 다섯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고 이러한 연유로 오송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분들은 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오송이라는 지명이 붙었지 않았나 하는 기분 좋은 말씀들을 하신다.

어찌됐건 조용했던 이곳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조그마한 농촌에는 생명과학도시로 새롭게 탈바꿈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10월 오송 제1생명과학단지가 준공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에는 보건의료행정타운이 준공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 분야 6대 국책기관과 250여개의 바이오관련 기업 및 연구소가 이곳 오송에 집중되어 있어 인허가에서부터 연구·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113만 1,000㎡에 이르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지정되어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바이오 산업을 선진

국으로 이끌어 나갈 중심 기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산학융합지구 지정을 통해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운영되어 향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약 140만㎡에 이르는 생산시설에는 CJ 제일제당, LG생명과학, 한화케미칼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와 가동 중에 있다.

또 경부고속철과 호남고속철이 만나는 국내 유일의 분기역이자 환승역인 KTX오송역은 국가철도망 X축의 꼭짓점으로 신수도권 시대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제2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기업 간 거래(B2B)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제2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화장품과 뷰티 관련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163개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1,000여명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총 2,800여회의 1대1 수출상담회를 통해 4억 6,522만달러(5297억)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으며, 1,000여명의 화장품·뷰티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학술대회와 세미나가 8차례나 개최되어 화장품·뷰티산업의 새로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마련되었다.

행사기간 내내 활기가 넘치는 KTX오송역을 보며 생명의 땅 오송의 달라진 위상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였다.

생명의 땅 오송은 현재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바이오산업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최치원 선생의 무병장수의 꿈은 천년이 흐른 지금 이곳 오송에서 현실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계기 되어야...

이 숙 애 의원
(교육위원회)



진로교육진흥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2016년부터 전면 실시 예정인 자유학기제와 맞물려 진로체험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충북지역 자유학기제 진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진로체험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분들을 만난 것은 큰 소득이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시험을 없애고 토론·실습 등 학생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개선한 바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다.

그러나 유럽에선 수십 년간의 운영을 거쳐 안정적인 반면, 우리는 2년간의 시범을 거쳐 전면 실시함으로써 발생될 혼란을 우려하기도 한다.

실제로 교육현장은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평가 등의 운영체계가 미흡하여 벌써부터 자유학기제로 인한 학력 저하를 지적하며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이 기회를 틈타 사교육을 조장하는 조짐까지 보이기도 하고, 이 짧은 기간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확실하게 찾도록 하라고 독촉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는 중단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현장의 교사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수와 경험부족으

로 혼란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의 표정과 태도가 달라지고 수업을 즐긴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했던 변화인가!

이에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모색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시행요건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사에 대한 연수기회 확대로 역량을 강화하고, 구체적·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둘째, 학교·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촌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운송수단 등 접근성 확보는 매우 시급하다. 관리자 및 교사의 인식격차,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력정도에 대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진로체험 방식은 교육의 장을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교육이 학교만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빨리 벗어나 교육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단체 학부모 등의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래형 창의적 인재는 지역이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체험처를 제공하고,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넷째,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정책만 내놓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예산은 정부에서 우선하고 일정 정도는 수익자 부담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는 정권과 관계없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진로찾기는 자유학기 동안만의 과제는 아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로 이후의 교육과정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전국 최초로 준비 중인 ‘충북교육청진로교육진흥조례’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 청원안내 |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날인),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제출사항

-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표시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 요구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 요구
-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자치단체 소관업무 등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4

| 민원안내 |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민원은 진정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민원제출방법

- 우편민원 :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 / 민원」에 글쓰기
- 전 화 : 043) 220-5154
- 팩 스 : 043) 220-5159

| 방청안내 |

■ 방청권 교부

- 방청권은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